

다문화가정아동의 5세 전 후 집단 간 언어발달특성 비교 연구

황 상 심*

남부대학교 언어치료청각학과

《 요 약 》

이 연구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아동 47명을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특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의 읍, 군, 면 및 시 인근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언어평가도구를 이용하여 통합언어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및 어휘이해연령(백분위)을 평가하여 연령집단에 따른 언어발달차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통합언어연령, 수용언어연령 및 표현언어연령에서는 두 연령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어휘이해 백분위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언어연령측면에서 60개월 이전 집단보다 60개월 이후 나이가 많은 아동 집단에서 더 많은 언어발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문화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발달 차이를 좁혀 정상적인 발달을 한다는 결과와 다르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나이가 증가하여도 언어발달의 차이를 여전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다문화, 다문화가정아동, 연령집단, 언어발달, 이중언어환경

I. 서 론

아동언어발달과 언어장애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일언어환경아동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미 전체 인구의 약 20%가 다문화가정 아동으로 이뤄진 미국의 경우도 언어발달장애 및 언어발달 연구는 단일언어환경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다문화환경 아동들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내 체류 다문화가족 인구가 110만 명이 넘어서서 전체 인구의 2%를 차지하며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도 전체의 11.1%로서 2000년

* 교신저자(hssksbjs@hanmail.net)

이후 3배가 늘어났으며, 자녀수 또한 10만명이 넘었으며, 이중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가 약 6만명으로 전체 아동 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 2009). 다문화의 정의(Troper, 1999)를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이념 및 이에 대한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요건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에는 무엇보다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2050년에는 외국인 10%가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망할 수 있다.

우리나라 다문화를 이룬 형태를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정의를 근거로 할 때, 특히 결혼이민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은 한국다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형태라 할 수 있다(한건수, 2008). 약 2%의 다문화가정 인구 중 2009년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 수는 약 6만명이며, 이중 실태조사에 확인되지 않은 아동과 외국인 근로자자녀와 새터민 자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더 많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이미 1.5세대와 2세대를 이루고 있는 아동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및 관련 특징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아동들의 언어발달 및 언어발달장애에 관한 논의를 할 때, 무엇보다 다문화환경에서 언어환경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환경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정도의 차이를 두고 어머니의 모국어와 우리말 두 가지 언어에 노출된 다문화 이중언어 환경에 처해 있다(임진숙, 2008; 정현영, 2007; 안은미, 2006; 황상심, 정옥란, 2008).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약 50-10%는 이중언어를 사용하거나 일상적으로 이중언어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주로 우리말로 대화를 한다고 응답한 어머니들의 경우도 약 45-95%까지 인데, 이 어머니들의 경우에도 일상 중 아동이 어머니의 모국어에 노출되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언어발달에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그들이 처한 다문화환경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다문화환경에는 언어와 문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속한 다문화환경이 아동들의 모국어 및 이중언어습득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을 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중 약 20-30%가 생활연령보다 1년 이상 언어발달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글로벌 센터, 2009, 황상심·정옥란, 2008), 특히 초기어휘발달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상심·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아동들이 단일언어환경인 일반아동들에 비하여 언어발달 차이가 나는 현상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다문화환경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특성에 앞서 단일언어환경 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언어발달

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발달의 시기의 국면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은 만 5세경에 모국어의 기본적인 말소리 발달, 어휘, 구문 및 화용적인 측면에서 기본적인 언어발달을 성취하고, 만 5세 이후에는 어려운 음운요소의 습득, 은유, 반의어, 관용어 같은 수사적 언어 사용 능력의 발달 및 보다 복잡한 문장의 길이와 복잡성의 및 담화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담화수준에서는 5세 이후에는 통사적 장치를 사용하여 연속적으로 발화를 연결하여 보다 긴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Hoff, 2005). 5세경에 모국어의 음운론의 거의 완전히 습득하며(Vihman, 1988), 5세까지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모국어의 기초문법과 습득 어휘집을 습득하여, 5세 이후에는 또래집단의 방언을 배우게 된다(Labov, 1970). 형태 및 통사의 발달에 있어서도 5세경에 기본적인 형태 및 통사 발달이 완성된다. 이 연령기의 아동들은 초기 단어조합에서 빠져있던 문법 형태소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고, 성인처럼 부사구나 종속절을 포함하는 복문을 만든다. 다문화가정 이중언어환경 아동들 또한 이와 유사한 언어발달의 지표를 따라간다고 할 수 있으나 연령별 언어발달 특성은 약간 다른 차이 특성을 보인다.

Genesee 등(1995)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이중언어환경으로 인하여 유아기 초기에는 언어발달이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런 차이는 없어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말소리 발달에서도 초기에는 두 가지 언어의 특성을 동시에 보일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의 말소리 발달을 완성시켜 나간다고 하였다(Paradis, 2000). 다른 구문이나 화용 및 어휘적인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단일언어집단 아동과 유사한 언어발달을 이뤄나간다고 하였다(Cargo, 1992; Lanza, 1997; Meisel, 2001). 우리나라 다문화환경 아동들의 우리말 습득을 다른 나라 다문화환경에서 이중언어를 습득하는 아동들의 과정과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아동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들의 언어발달차이가 좁혀지거나 또래 일반아동과 유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우현경 외, 2009; 정은희, 2004; 황혜신, 황혜정, 2000). 그러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경제적 및 언어적 환경에 따라서 이런 연령 증가에 따른 진전이 더디게 나타나거나 나이든 집단에서 더 많은 언어발달지체 현상을 보일 수도 있으며, 음운, 구문, 의미, 어휘, 화용, 형태, 또는 수용과 표현 등의 언어영역에 따라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의 진전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박지윤(2007)은 3, 4세 어린 연령의 다문화가정 아동들보다 6세의 다문화가정 연령아동집단에서 언어발달 차이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스페인어와 영어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의 어휘연구 결과에서는 단일언어 스페인어 사용 아동들보다 -2 표준편차 아래에 있었으며 이 점수는 유아원을 마칠 때까지 유지되었다고 한다(Lonigan, 2003). Lindsey 등(2003)은 다문화환경 유치원 아동들의 스페인어 구어언어기술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며, 이

후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Manis 등(2004)의 추수연구에서도 그 결과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또래집단과 다른 가족이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되면서 어린시기의 언어발달차이를 회복한다는 연구 결과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보수적인 지역특성, 결혼과정, 가부장적 가족생활, 지역적 접근성,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경상북도, 2007) 다른 다문화환경 다른 특성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집단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들의 연령증가에 따른 언어발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령집단 기준을 만 5세로 설정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만 5세는 모국어의 기본 체계를 습득하고 언어발달의 결정적인 시기(Hpff, 2005, Labov, 1970, Leeneberg, 1967)라는 것을 근거로 만 5세(60개월)이전과 만 5세 이후(60개월 이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 평가, 중재 및 지원계획과 더불어 다문화아동들의 언어발달지원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5세 전 후 집단 간 통합언어연령에 특성적 차이가 있는가?
- 둘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5세 전 후 집단 간 수용언어연령에 특성적 차이가 있는가?
- 셋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5세 전 후 집단 간 표현언어연령에 특성적 차이가 있는가?
- 넷째,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5세 전 후 집단 간 어휘이해연령(백분위)에 특성적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생활연령이 만 2세 11개월에서 7세 연령범위의 다문화환경아동 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대상아동 중 남자 아동이 26명, 여자 아동이 24명이었으며, 아동들의 어머니 출신나라는 일본이 22명(47%), 필리핀 22명(47%), 베트남

남, 태국 등의 기타 나라 출신이 6명(13%)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동들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읍, 면 단위 농촌지역과 도시 근교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에 의한 다문화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둘째, 생활연령이 만 2세에서 7세 사이의 아동들로서 셋째,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나 사회심리적인 문제, 다른 감각기관의 문제를 보이지 않으며, 넷째, 표준화된 지능검사 도구인 한국웍슬러 유아지능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2002)에서 동작성 지능이 85 이상에 속하는 아동들이다.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차이가 지능에 의한 차이가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능검사 중 동작성이 정상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필리핀, 일본, 베트남, 중국, 태국 등 출신으로서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어머니들이다. 필리핀과 베트남 어머니들의 50% 이상이 전문대학졸업 이상이었으며, 이들 어머니 중 약 30%는 시간제로 외국어 강사를 하고 있었다. 약 50%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나, 주 아동 양육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하고 있었다. 월소득은 전체 가정의 약 92%가 평균소득이 200-250만원 이하였으며, 100만원 이하가 28%였다. 어머니들의 68%가 모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하며, 어머니 출신나라 언어만 사용하는 비율은 약 4%였다. 다문화가정 자녀 중 83%는 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어머니의 언어와 우리말을 함께 사용하는 아동은 17%라고 대답하였다. 아동들은 평균 2년 정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정된 대상자의 수, 연령 등 관련된 인구통계적 정보는 <표 1, 2, 3>과 같다.

<표 1> 연령대별 아동 수

연령대	일 본		필리핀		기 타		합계	
	아동 수	퍼센트	아동 수	퍼센트	아동 수	퍼센트	아동 수	퍼센트
만 4세 미만	3	17	5	26	2	33	10	21
만 4세	5	23	3	16	1	17	9	19
만 5세	6	27	7	37	1	17	14	30
만 6세 이상	8	36	4	21	2	33	14	30

<표 2> 부모의 연령 및 결혼기간

	일 본 평균	필리핀 평균	기 타 평균	합 계 평균
어머니 연령	41	34	30	37
아버지 연령	47	43	46	45
결혼 기간	10	7	7	8

<표 3> 다문화가정 아동의 평균연령 및 동작성 지능

	일본		필리핀		기타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연령	65개월	15	59개월	16	63개월	22
동작성IQ	108	15	102	15	116	19

2. 연구 도구

1) 선별 도구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상적인 지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웍슬러 유아지능 검사(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박혜원 등, 2002)를 사용하였다. 한국유아용웍슬러 지능검사는 취학 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으로 만 3세에서 7세 3개월 아동들의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다. K-WPPSI는 언어성 소검사와 동작성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검사에서는 동작성 지능 검사인 “모양 맞추기”, “도형”, “토막짜기”, “미로”, 및 “빠진 곳 찾기”의 5개의 소검사를 사용하여 동작성 지능을 측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지능 지수 85 이상은 -1 표준편차 이상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및 심리측정에 사용된 평가도구 언어의 유창성 문제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학습장애나 특수반에 과잉으로 배치되는 사례가 빈번한 점과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이 유사한 심리측정학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특성을 감안(Oller, Kim, & Choe, 2000)하여 동작성과 언어성 소검사 중 언어적 유창성을 덜 요구하는 동작성 소검사만을 사용하여 아동의 정상지능 정도를 판단하였다.

2) 아동 언어 능력 언어평가 도구

다문화집단 아동과 비교집단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현언어척도(Preschool Recetpive-Expressive Language Scale, 김영태 등, 2003)와 그림어휘력 검사(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 Revised, PPVT-R, 김영태 등, 1997)를 사용하였다.

취학 전 아동의 수용-표현언어 척도는 2-6세까지 아동들의 수용 및 표현언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를 통해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어발달지체가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발달 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결과 해석은 연령단계를 근거로 하여 수용언어발달연령(Reveptive Language Age; RLA)과 표현언어발달연령(Expressive Language Age; ELA), RLA와 ELA의 평균연령인 통합언어발달연령(Combined Language Age; CLA) 및 획득점수를 근거로 백분위점수를 산출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용언어발달연령과 표현언어발달연령의 평균연령인 통합언어발달연령, 수용언어발달연령 및 표현언어발달연령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을 비교하였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휘 이해력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그림어휘력 검사는 2세에서 8세 6개월까지 아동들의 어휘 이해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문항구성은 명사 66개, 동사 33개, 형용사 11개, 부사 1개, 수사 1개, 총 1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방법은 4개의 그림 중 검사자가 지시하는 것을 아동이 손으로 지적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며, 결과는 백분위와 등가연령으로 환산하여 제시되고, 등가 연령은 6개월 단위이다.

3. 연구 절차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각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청, 면사무소, 보건소 등에 언어발달평가 지원신청서를 발송한 결과 50명의 다문화가정 아동이 지원을 하였다. 이들 아동 중 발달적인 문제가 있거나, 동작성 지능에서 85 이상 되지 않은 아동 및 연령상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아동을 제외하고 전체 대상 50명 아동 중 47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아동들의 연령 범위는 만 2세 11개월에서 7세였다. 아동의 언어발달 및 동작성 지능 평가는 1급 언어치료사로서 10년 이상 언어치료 임상실무를 하였으며, 대학원과정에서 지능검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하고 심리검사 워크샵을 수료하였으며, 다년간 웨슬러지능검사 평가 경험을 한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대상아동을 선정 한 후 개별적으로 부모와 면담을 실시하여 부모의 학력, 직업, 연령 및 사회경제적 수준, 아동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부모와의 면담은 주로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마을회관 또는 대학 언어치료센터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머니가 우리말이 서툰 경우 다른 가족과 면담을 하고 아동 언어발달 평가 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다.

아동의 언어발달평가는 아동과 충분한 라포르 형성 이후 실시하여야 하나, 다문화가정 아동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과 지역적 접근성 및 농번기로 인해 부모들이 아동들을 데리고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만나 약 30분 정도 놀이를 하며 아동과 관계 형성을 한 후 실시하였다.

평가는 아동의 주의집중력 등을 고려하여 취학 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 언어척도를 먼저 실시한 후 그림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아동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문화가정 부모의 요구에 따라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대학 언어치료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실시하였다. 취학 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언어 척도는 수용언어평가를 먼저 실시하였으며, 수용 및 표현언어 척도에서 부모보고 항목에서 부모보고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평가자가 질문을 하거나 유사한 항목으로 직접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림어휘력 평가에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에게 충분히 연습항목으로 검사에 익숙하게 한 후 실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에 소요된 시간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30분 정도의 라포르 이후 1명의 아동 당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였다. 아동 중 그 날 컨디션에 따라 하루에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1주일 내에 다시 평가를 실시하여 마무리 하였다.

4. 결과 처리

연령 집단 별 차이 비교를 위해서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SPSS/Win 15.0의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2세 11개월에서 7세 범위의 다문화가정아동 47명을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 간의 언어발달 차이를 t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언어평가 결과는 두 집단 간의 통합언어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그리고 생활연령과 언어발달연령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령집단을 60개월과 60개월 이후로 집단으로 나눈 것은 60개월은 만 5세의 연령으로 학령기와 학령전기를 나누는 시기가 됨과 함께 모국어 습득이 90% 이상 완성되는 시기를 근거로 하였다(Leeneberg, 1967). 결과는 소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1. 5세 전 후 집단 간 통합언어연령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통합언어연령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통합언어연령은 취학 전 아동의 수용 및 표현언어척도 검사 결과에서 수용언어연령과 표현언어연령을 합하여 2로 나누어 구한 것이다.

<표 4> 5세 전 후 집단 간 통합언어연령 차이

연령 집단	아동 수	평균연령	통합언어연령	표준편차	t
60개월 이전	20	46	41	10	6.363***
60개월 이후	27	77	62	12	

*** $p < .001$

60개월 이전 다문화 아동 집단의 평균 통합언어연령은 41개월(표준편차 10), 60개월 이후의 평균 통합언어연령은 62개월(표준편차 12)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6.363, p < .01$). 60개월 이전과 60개월 이후 아동 집단의 평균 생활연령 비교 평균 개월 수로 살펴보았을 때, 60개월 이전 아동들은 평균 생활연령보다 약 5개월 정도 언어발달의 차이를 보이지만 60개월 이후 집단 아동들은 평균 생활연령보다 약 15개월의 통합언어연령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서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생활연령 비하여 통합언어발달연령에서 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5세 전 후 집단 간 수용언어연령의 차이

60개월 이전과 60개월 이후 두 집단의 연령에 따른 수용언어연령의 결과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5세 전 후 집단 간 수용언어연령의 차이

	집단 구분	아동 수	평균연령	수용 언어연령	표준편차	t
수용언어 연령	60개월 이전	20	46	41	11	7.072***
	60개월 이후	27	77	64	10	

*** $p < .001$

60개월 이전 다문화아동 집단의 수용언어연령은 41개월(표준편차 10), 60개월 이후 집단의 수용언어연령은 64개월(표준편차 12)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7.072, p<.01$).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아동 집단의 평균 수용언어연령 개월로 살펴보았을 때, 60개월 이전 아동들은 평균 연령보다 약 5개월 정도 언어발달 차이를 보이지만 60개월 이후 집단 아동들은 평균 연령보다 약 13개월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생활연령 기대 수준보다 수용언어 발달연령에서 더 차이가 있었다.

3. 5세 전 후 집단 간 표현언어연령의 차이

다문화 환경 아동들을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표현언어연령의 차이를 살펴보고 <표 6>에 나타내었다.

<표 6> 5세 전 후 집단 간 표현언어연령의 차이

	연령집단	아동 수	평균연령	평균	표준편차	t
표현언어연령	60개월 이전	20	46	41	11	6.659***
	60개월 이후	27	77	61	10	

*** $p<.001$

60개월 이전 아동 집단의 표현 언어 평균 연령은 41개월이었으며, 60개월 이후 아동 집단의 평균 표현 언어 연령은 61개월로 60개월 이전 집단과 이후 집단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t=6.659, p<.01$). 두 집단의 평균연령과 수용언어연령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60개월 이전 집단은 연령대비 5개월의 표현언어발달 차이를 보이지만 60개월 이후 집단 아동들은 실제 평균 연령보다 약 16개월의 표현언어연령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써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실제 연령보다 더 지체됨을 보여주고 있다.

4. 5세 전 후 집단 간 어휘이해연령(백분위)의 차이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연령집단에 따른 어휘이해연령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집단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어휘이해연령의 결과

를 백분위로 나타내었다. 그림어휘력검사가 6개월 단위 등가연령 형태로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 분명한 월령을 제시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백분위로 두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7> 5세 전 후 집단 간 어휘이해연령 백분위

연령	아동 수	백분위	표준편차	t
60개월 이전	20	48	34	-.192
60개월 이후	27	46	33	

60개월 이전 아동들의 평균 어휘이해연령 백분위는 48%ile(표준편차 34)이었으며, 60개월 이후 아동들의 평균 어휘이해연령 백분위는 46%ile(표준편차 33)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평균 중앙치인 50%ile 보다 더 낮은 어휘이해연령 백분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상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아동들의 연령 범위를 만 4세 미만,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아동들의 생활연령과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어휘이해연령(상위등가연령)의 차이를 비교하여 <표 8>에 나타내었으며, 어휘이해연령의 경우 6개월 단위 등가연령 중 상위등가연령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표 8> 생활연령과 각 언어연령의 비교

연령 범위	수용언어연령차이	표현언어연령차이	어휘이해연령차이
만 4세 미만	-4	-5	1
만 4세	-4	-5	-2
만 5세	-10	-10	1
만 6세 이상	-12	-17	-3

<표 8>의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연령증가에 따라 생활연령보다 언어발달연령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용언어연령측면에서 살펴보면, 만 4세 미만과 만 4세 집단의 경우 생활연령과 언어평가 결과의 차이가 약 4개월인데 비하여 만 5세의 경우는 약 10개월, 6세 이상이 경우에는 1년 이상 차이가 있었다. 표현언어연령의 경우 만 4세 미만과 만 4세 연령대에는 생활연령 보다

5개월 정도 지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5세 연령집단은 10개월, 만 6세 이상은 17개월 정도 생활연령에 비하여 표현언어연령이 지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용언어보다는 표현언어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휘이해연령에서는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이상 4집단 모두에서 연령집단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언어발달평가 결과에서 언어발달지연이나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생활연령 대비 1년 이상 언어발달의 차이를 살펴보면, 만 5세 이전 아동 집단은 전체 19명의 아동 중 생활연령에 비하여 1년 이상 차이를 보이는 아동은 3명으로 전체의 16%였으나, 만 5세 이후 집단에서는 생활연령에 비하여 1년 이상 언어발달의 차이를 보이는 아동이 28명 중 16명으로 전체의 57%였다. 이 중 특히 만 6세 이상 연령에서 더 많은 언어발달차이를 차이를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다문화가정 아동 47명을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두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과 경상북도의 읍, 군, 면 및 시 인근 주로 농촌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도구인 취학 전 아동의 표현 언어 및 수용언어 척도(김영태 외 2003)와 그림어휘력 검사(김영태 외, 1997)를 이용하여 통합언어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및 어휘이해연령(백분위)을 평가하여 연령집단에 따른 언어발달차이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집단에 따른 통합언어연령의 차이를 살펴보면,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0개월 이전 아동들은 실제 평균 생활연령보다 약 5개월 정도 차이를 보인 반면, 60개월 이후 집단 아동들은 실제 평균 생활 연령보다 약 15개월의 통합언어연령에서 차이를 보임으로서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언어발달차이가 더 많이 나타났다.

둘째, 연령집단에 따른 수용언어연령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수용언어연령에서는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두 집단 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0개월 이전 아동들은 평균연령보다 약 5개월 정도 언어발달 차이를 보인 반면 60개월 이후 집단에서는 약 13개월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생활연령 기대 수준보다 수용언어발달에서 더 차이가 있었다.

셋째, 연령집단에 따른 표현언어연령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표현언어연령에서는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두 집단 간 통계상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60개월 이전 아동들은 평균연령보다 약 5개월 정도 언어발달 차이를 보인 반면 60개월 이후 집단에서는 약 16개월의 차이를 보임으로서 나이가 많은 아동집단에서 생활연령 기대 수준보다 표현언어발달에서 더 차이가 있었다.

넷째, 연령집단에 따른 어휘이해연령 백분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60개월 이전 아동들의 평균 어휘이해연령 백분위는 48%ile이었으며, 60개월 이후 아동들의 평균 어휘이해연령 백분위는 46%ile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평균 중앙치인 50%ile 보다 더 낮은 어휘이해연령 백분위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상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60개월 이전 집단보다 60개월 이후 나이가 많은 아동 집단에서 더 많은 언어발달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발달 차이를 좁혀 정상 발달을 해 나간다는 이전의 선행연구 결과(정은희, 2004; 황혜신, 황혜정, 2000; 우현정,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와 다르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나이가 증가하여도 언어발달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문화 이중언어환경으로 인하여 초기 아동기에 언어발달의 차이를 보이는 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집단 이나 다른 다양한 집단과의 활발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언어발달차이를 좁혀 정상적 발달을 해 간다는 일반적인 결론과 다르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어린시절에 보이는 언어발달의 차이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유지 되거나 보다 나이든 연령대에서 발달해야하는 구문이나 형태적인 측면의 언어영역에서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언어-이해인지력검사로 수용언어 발달을, 평균형태소(MLU-m) 분석을 통해 표현언어발달 연구를 한 정은희(2004)의 결과를 보면, 만 3세, 4세, 5세 아동 집단 중 만 5세 아동 집단에서 1년 이상 수용언어차이가 나는 비율이 가장 낮아, 연령증가에 따라 수용언어발달이 증가 현상을 보였으나, 평균형태소 길이 분석에 의한 표현언어 결과를 보면 -2SD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아동이 만 4세(4:0 ~ 4:11) 아동 9명 중 6명으로 약 67%를 나타내었으며, 만 5세(5:0 ~ 5:11) 아동은 8명 중 5명으로 약 63%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하였음에도 표현언어에서는 두 집단 간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수용언어연령에서 차이를 보이는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이거나 표현언어에서는 생활연령이 높은 집단에서 여전히 차이를 보이는 것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영어판 PPVT(Dunn & Dunn, 1981)와 그림어휘력 검사를 통해 4, 5, 6세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아동들의 어휘능력을 평가한 황혜신-황혜정의 연구(2000)의 연구 결과에

서는 6세 아동들의 경우 또래와 어휘능력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그림어휘력을 통한 어휘이해력 평가결과에서 60개월 이전 집단과 60개월 이후 집단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어 결과가 유사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 능력에는 어휘력보다는 다른 언어영역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웨슬러 유아지능검사(박혜원 외, 1996), 그림어휘력(김영태 외 1995), 구문의미이해력검사(배소영 외 2004)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어휘표현, 어휘이해, 구문의미이해력을 평가한 연구(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결과를 보면, 어휘이해력 평가결과에서는 3, 4, 5, 6세 아동들이 지체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어휘표현 및 구문의미이해에서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언어능력이 뚜렷이 향상되는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와 동일한 평가 도구를 사용한 박지윤(2007)의 결과를 보면, 3세, 4세 연령대의 아동들은 생활연령 대비 1년 이상 언어발달에 차이가 나는 아동이 없었으나, 5세 연령대 아동은 9명 중 1명, 6세 연령대 7명 중 5명이 생활연령 대비 1년 이상 언어발달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들의 언어발달의 지연 정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일반아동과 언어발달 결과를 비교한 황상십·정옥란(200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아동들은 만 4세, 5세, 6세 집단 아동 모두 생활연령 대비 1년 이상 언어발달차이가 나는 집단이 없었으며, 생활연령에 비하여 평균 5-6개월 정도 언어발달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휘발달연령은 전체 아동들의 평균 백분위가 98%였다. 유사하게 박지윤(2007)의 연구에서도 3세에서 6세 연령대의 일반아동들의 언어평가결과가 생활연령과 유사하거나 5세 6세 아동집단에서는 각각 3개월과 4개월이 더 높게 나타나 일반 아동들은 연령증가에 따라 언어발달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동일한 다문화환경이라 할 수는 없으나, Lindsey 등(2003)은 다문화환경 유치원 아동들의 스페인어 구어언어기술이 단일언어 아동들보다 더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는데, 이후 동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Manis 등(2004)의 추수연구에서도 그 결과는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보다 최근의 다른 연구에서는 낮은 SES 아동들의 구어언어능력에서의 차이가 저학년 내내 이어지고 있어 이런 아동들의 구어기술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August & Shanaham, 2006). Páez, Tabors, López(2007)의 이중언어환경 아동과 단일언어환경 아동들의 구어 능력과 문식능력 발달 연구를 보면 이중언어환경 아동들의 스페인어와 영어 모두 단일언어사용 아동들보다 어휘평가에서 2 표준편차 아래에 있었으며, 이 점수는 아동들이 유아원을 마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의 개선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연령이 증가하여도 언어발달의 정도가 진전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어휘이해력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언어능력이 향상 되거나 비교 집단인 일반아동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언어표현 및 구문적인 측면에서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나이가 많은 아동들의 언어발달에서 언어표현, 그 중 특히 구문이나 형태적인 측면의 평가 및 중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초기아동기의 언어발달이 주 양육자의 언어적인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는 만큼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의 아동과의 언어적 상호작용 및 어머니 언어사용 등도 함께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결과가 동일한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른 결과 추이를 다룬 종단연구가 아니라는 점과 대상 아동 수 및 연령대의 제한점, 아동의 이중언어환경 정도 및 이중언어발달 정도, 아동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살펴볼지 않은 점을 제한점으로 남기며, 추후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언어발달 특성 연구를 권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경상북도도청 (2007). 경상북도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정책과제.
- 김영태, 성태제, 이윤경 (2002).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발달 척도**. 서울장애인복지관.
- 김영태, 장혜승, 임선숙 (1995). **그림어휘력 검사**. 서울장애인복지관.
- 박지윤 (2007). 이중언어환경 아동의 언어발달 특징. 석사학위 논문, 대구학교 대학원.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2002). **한국웍슬러 유아지능검사**.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서울글로벌센터 (2009).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평가.
- 안은미 (2006). 농어촌 국제결혼 가정 자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과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임진숙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현영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 한건수 (2008).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 이주민지원정책 방향. **중앙공무원교육원**, 109-113.
- 행정안전부 (2009).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 황상심, 정옥란 (2008). 경상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특성 연구. **언어청각 장애연구**, 13(2).
- 황상심 · 정옥란 (2008).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관련변인 상관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 항상심, 김화수 (2008). 다문화가정 언어환경과 언어발달, 2008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언어
청각임상학회, 68-70. 황혜신, 황혜정 (2000). 이중언어(한국어-영어)를 하는 아동언
어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69-79.
- August, D., & Shanahan, T. (2006). Developing literacy in second-language
learners: Report of the National Literacy Panel on Language Minority Children
and Youth.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 Dunn, L. M. & Dunn, L. M. (1981).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
Circle Pines, MN: American Guidance Service.
- Labov, V. (1970). Stage in the acquisition of standard English. In H. Hungeford, J.
Robison, & J. Sledd (Eds.), *English linguistics*, 24, 603-625.
- Lindsey, K., Manis, F., & Bailey, C. (2003). Prediction of first-grade reading in
Spanish-speak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3), 482-494.
-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 of language*. New York: Wiley.
- Lonigan, C. (2003).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mergent literacy skill in
preschool children at-risk of reading difficulties. In B. R. Foorman (Ed),
Preventing and remediating reading difficulties: Bringing science to scale (pp.
23-50). Timonium: MD: York Press.
- Manis, F. R., Linsey, K., & Bailey, C. (2004). Development of reading in grades
K-2 in Spanish-speaking English Language learner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19(4), 214-224.
- Hoff, E. (2005). *Language Development*, Thomson Learning.
- Oller. J. W., K. Kim., & Y. Choe(2000). Testing verbal(language) and non-verbal
abilities in language minorities: a socio-education problem in historical
perspective, *Language Testing*, Vol, 17(3), 341-360.
- Genesee, F. Nicoladis, E. & Paradise, J. (1995). Language differentiation in early
bilingual develop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22, 611-31.
- Lonigan, C. (2003).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emergent literacy skill in
preschool children at-risk of reading difficulties. In B. R. Foorman (Ed),
Preventing and remediating reading difficulties: Bringing science to scale (pp.
23-50). Timonium: MD: York Press.
- Páez, M. M., Tabors, P. O., López, L. M. (2007). Dual language and literacy
development of Spanish-speaki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Psychology*, 28, 85-102.
- Troper. H. (1999). Multiculturalism. pp, 997-1006 in Paul Robert Magocsci(ed.).
Encyclopdia of Canada's peoples.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Vihman, M. M. (1996). *Phonological development: The origins of language in the
child*. Cambridge, MA: Blackwell.

A Study on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ccording to ages in Culturally Diverse Family
Environments

Hwang, Sang-Shim

Nambu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comparing languag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from culturally diverse families according to age groups(before 60 months and after 60 months). For this study, 47 children from multicultural environment were participated. The majority of them came from the Philippines and Japan. To evaluate language abilities of the children, two standardized tests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and Picture Vocabulary Test) were used. Performances were analyzed by the “*t*” test proced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e groups in receptive language age, expressive language age and combined language age,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e groups in receptive vocabulary abilities. The older age one shows less performance than the younger.

Key Words

: culturally diverse family, multicultural environment, language characteristics, age groups, language abilities

논문 접수: 2009. 8. 5 심사 시작: 2009. 8. 7 게재 확정: 2009. 9. 15

